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20-2400 ~ 241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음 10월 11일) 제16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분노에 찬 국민 여론은 박근혜 퇴진 뿐”

“국민들을 기만하는 총리협상 중단해야”

전북비상시국회의
야권을 향해 쓴소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야당을 향해 쓴 소리를 내뿜었다.

도내 6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비상시국회의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기만적인 총리협상을 단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를 방관해 자신이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 같은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이어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이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관한 이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협상



잼버리 새만금유치 ‘현재진행형’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를 위해 오만 무스카 아랍총회에 참석한 유치단은 8일(현지시간) 살렘 바비리만 알다미키 아랍에미네이트(UAE)연맹 총재, 진흥 정무부지사, 정복현 한국스카우트 부총재와 김인규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도립국악단원 등이 참석한 오만과 UAE(아랍에미리트)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교류 MOU체결을 하고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안에 대해 대통령 2선 후퇴를 요구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성립하기도 어려우며, 내치는 여야 합의 추진 총리가 말고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야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살리기 위해 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의 민

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수도 없이 파괴했다는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은 진작 퇴진돼야 마땅하다”면서 “그런 무리들이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면서 “특검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회추천 책임총리제 등의 말로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종말을 향해 가는 박 정권을 되살리는 응급조치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두 야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 3중대가 되어 규탄을 받을 것이며, 역사 속에서 청산해야 할 퇴진의 대상이 될 뿐이다”고 선을 그

었다.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퇴진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충실한 방법”이라면서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보수야당을 중단하고 박정권 퇴진에 즉각 나서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행동으로 참여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형 기자

전주서 터진 폭발음
정체는 ‘전투기 굉음’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발음은 바로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내 곳곳에서 “갑자기 굉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오후 3시10분 이후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가 불특정 복수의 장소에서 접수된데다 일시적이었던 점에 비춰 비행 중인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소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폭발음으로 인해 일순간 논란이 된 가운데 폭발음의 원인은 전투기 굉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군산기지)측은 폭발음이 들린 시각에 훈련이 있었고, 전투기의 제한속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 군산기지 측은 “전투기 제한속도가 있는 데, 속도가 더 올랐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매일 INDEX

3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군산조선소 폐쇄하면 일자리 없다”

한노총-전북경영자총협회, 조선소 존치 호소

“울산 배치 LPG운반선 2척을 군산에 배정해야”

산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전북 본부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이 중단되면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조선소 존치를 호소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선박 건조 수주부진으로 군산과 울산 공장의 도크(dock·선박건조대) 가동의 중

단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개혁 안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계획이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울산에 배치된 LPG운반선 2척을 군산 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군산조선소는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작업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데다 이미 배정된 LPG 선박 2척마저 지난 7월 울산 본사로 이전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작업물량이 없는

상황이다. 군산조선소의 작업물량 소진으로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 등 700여명이 이미 실직했다.

1조2,000억원을 들여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2~2015년 4조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700명의 직원과 사내·외 협력사 80여개에서 4,000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100만 원도민 서명”을 받아 현대중공업에 전달하고 도민과 함께 군산조선소 존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정국 혼란’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자 협의를 한 뒤 8일 만에 이뤄진 회의로 체결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오늘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미뤄 사실상 이번 협의를 통해 최종문안이 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실무자 협의회에 우리 측은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정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일본 측은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이 참석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

양국 정부, 2차 실무협의 진행

를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기반으로 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교류만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양국 군 당국은 당초 연내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달 말까지 한 달 정도 시점을 앞당겨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4년 전 협정문안까지 마련했던 만큼 이를 토대로 협정체결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그동안 GSOMIA는 국민 여론 등 여건의 성숙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

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정치적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다음달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차은택,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차은택은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문화계 대도(大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은택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린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앞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문화계 대도(大盜)’인 차은택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MG새마을금고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EVERYDAY MY COLOR

매일 매일 나만의 혜택을 입다

<p>MINT체크카드</p> <p>대형마트 5% 할인 편의점 5% 할인 통신비 5,000원 할인 골프장, 골프연습장 5% 할인 스모크·레저 5% 할인 영화 2,000원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p>	<p>PEACH체크카드</p> <p>백화점 7% 할인 온라인 쇼핑 10% 할인 커피 1,000원 할인 뷰티업종 10% 할인 문화 공연 5% 할인 영화 2,000원 할인 학원 5% 할인</p>
<p>CREANSI체크카드</p> <p>기본적립: 최대 0.2% 적립 추가적립: 이용금액의 1% 적립</p>	<p>LIME체크카드</p> <p>주유할인 2,000원 최대 60원 할인 커피 1,000원 할인 편의점 1,000원 할인</p>